

대행 스님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그냥 무조건 공에다 놔버리세요

어떻게 해야 탁 놓을 수 있을지

질문 스님들께서는 자꾸 놓으라 하시는데 저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분별이 많아 탁 놔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탁 놓을 수 있을는지요.

답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각자가 다 이게 물건이 있으면서도 공입니다. 아는 거든지 모르는 거든지 머리에서 좀 아는 거는 다 공에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놓는 것도 믿어야 놓을 수 있습니다. 덜 믿기 때문에 못 놓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직 들고 나는 것은 한군데밖엔 없습니다. 구멍 없는 구멍. 나고 드는 곳은 오직 그거 한군데밖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군데를 노리고 거기에다, 놓는 것도 거기에다 놓으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차라리 무지막지하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는 게 머리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꽉 찼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도 똘똘 한데 뭉쳐서 그냥 공에다 놓으세요. 놔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요. 머리에서 아는 게 떠올라도 처음에는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얻다 놓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없다면 공도 없다는 거. 바로 내가 공이니깐 나한테 놔야죠. 그것도 이름해서 '당신 주인공에다 놔!' 하거든요. 내가 공인데 거기에 무슨 화두가 또 붙느냐 이겁니다. 내가 공이고 내가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 놔라 이거예요.

놔 버리다 보면 자연적 싹이 트게 됩니다. 그때에 의정이 나게 되죠, 정말 의정이. 그저 생활 속에서 의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때 딴 사람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 놓을 수 있어서 다 놓게 되면, 그때 싹만 난다면 그때는 그 아는 거를 써먹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아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지만 그건 이차입니다. 이차로 돌리셔야죠. 자꾸 그게 앞서기 때문에, 앞설 것이 자꾸 뒷서기 때문에 이게 엇갈리고 아리송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련한 듯해야 쉽다이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냥 무조건 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는 억만 가지로 이 실이 두리두리 두리두리 그냥 엉켜서 잔뜩 쌓여 있거든요. 이걸 풀려면 이 인간으로선 보이지 않는 실밥이 뭉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풀어야지, 보이는 데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야 그 실밥은 한순간에도 풀릴 수 있는 거죠. 그 한순간에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모든 거를 쌓았기 때문에 탑 위에 봉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탑을 쌓지도 않고 그게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냥 놔 보십시오. 오늘부터, 놔지나 안 놔지나. 그 본래 놔져 있다고, 놓고 간다 이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 그 실천을 하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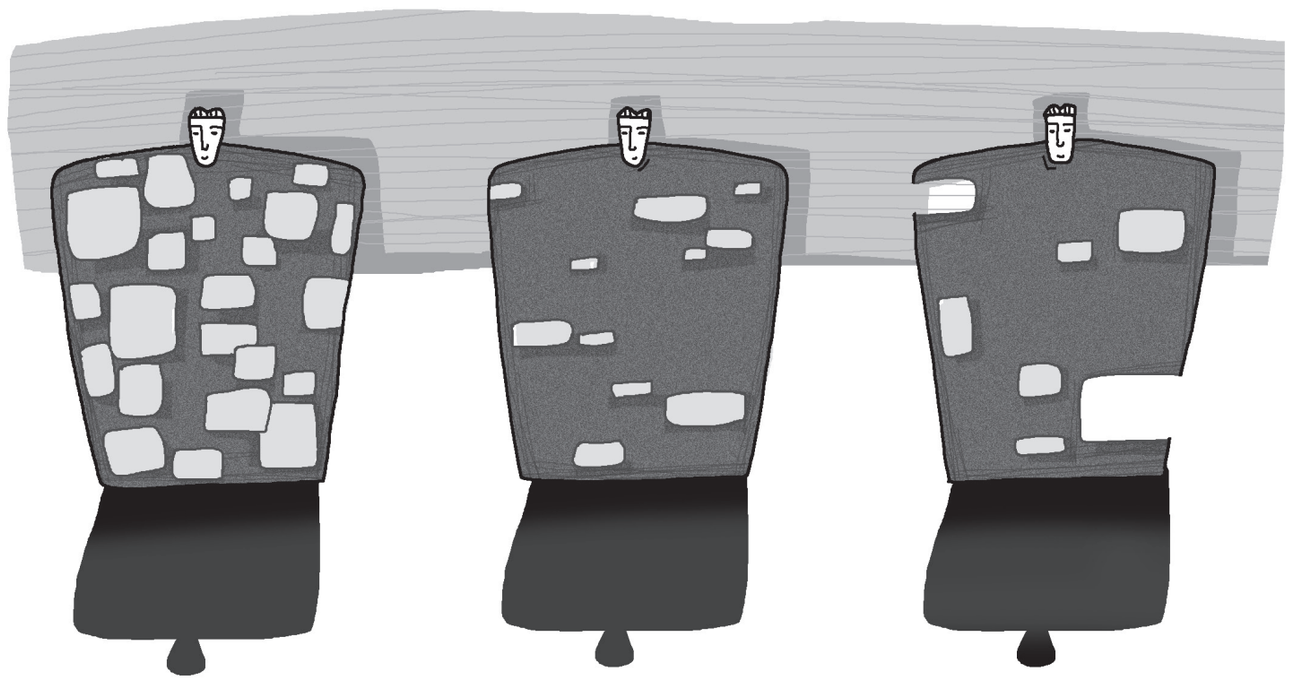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질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그동안 아득바득 살아왔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여해지고 싶은데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날 우리 불교가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을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도 어떻게 처리해야만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미가 돼서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 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도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이 늙어가면서,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아니 햇빛 주랴 묵은 빛 갚으랴, 이건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옇게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바로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바로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기복으로만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오너라. 덜 가져오너라. 많이 가져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럽디까? 그러니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죠.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 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때 공짜로 떼어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어째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